

7차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 실업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

최 은 진* (해운대 중학교 교사)

최 현 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양산에 대한 원인으로 신용교육의 부재가 대두되면서 금융 소비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이나 사회교육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교육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중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체계를 지니고 있는 교과인 '실업과'와 '사회과'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과와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내용 요소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였다. 물론 각 교육영역별로 심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7차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금융소비자교육내용요소 중 극히 일부만이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심화교육보다는 부족한 영역에 대한 보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실업교과와 사회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금융소비자교육영역은 36개영역으로 실업교과에서 19개 영역이 사회과에서 28개 영역이 다루어졌으며 이중 11개영역은 두 교과에서 중복되어 다루어졌다. 현재와 같은 교과과정으로는 성공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할지라도 금융소비자문제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의 내용을 대폭 확충해야 하며 사회과와 실업과에서 다루는 금융소비자교육의 효율적인 분장이 요구된다. 사회과에서는 기본경제원리와 금융환경영역 중 일부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구성하고 실업과에서는 개인재무관리영역과 금융소비자의 역할 영역 그리고 금융환경영역 중 금융기관이용하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사회나 경제 또는 기술·가정과는 별도로 미국과 같이 정규교과과정에서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만을 다루는 교과목(Personal Finance)인 가칭 '개인재무관리' 또는 '소비자재무관리'의 신설을 제언하는 바이다.